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여기에서 뭐하니**

성경: **열왕기상 19장 9-18절**

Tag:

9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왕상 19:9-18)

오늘 9절 말씀에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로 번역되었지만, 원문 그대로는 ‘너 지금 여기에서 뭐하니(머선일이고; 너 지금 뭐하고 있는거니? 너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니?)’이다.(뜻의 차이는 크지 않음)

엘리야는 ‘뭔가 하는’ 선지자로 유명하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다. 모세 이후로 가장 강력하고 특출난 선지자는 엘리야다. 그는 뭔가 화끈한 일을 하는 자였다. 그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인 자였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제단을 불사른 자였다.

그가 기도하자 3년6개월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

또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내렸다.

그랬던 그가 한 순간 공포에 휩싸이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망하였다. 도망한 것은 잘한 것인데, 호렙산까지 올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호렙산까지 온 것도 잘한 것인데, 굴 속에 숨어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도데체 뭐하는 짓이고?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자였다.

그는 문제의 원흉이 이세벨이고, 왕이 이세벨의 꾀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이세벨에게는 그녀를 돕는 바알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도합 850여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 엘리야는 가뭄을 예언하고 숨어버렸다. 엘리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숨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다고 착각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만 죽이면 이세벨은 힘이 없어질 것이고, 아합왕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우상을 깨 부수고, 거짓 선지자들을 척결하고, 이세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나라를 정상화 시

키고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아합왕도 신이나서 아내에게 달려가 자세한 내막을 보고 드렸다.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곧 자객을 파견해서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고 선언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피난길에 오른 것이다.  
피난길에 오른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다. 잠시 몸을 숨기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도 엘리야의 피난길을 도우셨다.

그러나 그 후 그는 호렘산 동굴 속에 쳐 박혀서 나오지 않았다.

- 그가 동굴에 웅크려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는 850대 1로 싸운 자이다.
- 아합왕이 무서워서? 도망 가서 숨으면 그 뿐이다.
- 왜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받았다는 느낌 때문이다.
- 내가 목숨걸고 싸워 이겼으면, 세상은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 왜 세상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도 여전하신가?
- 세상이 내 맘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노여워하지 말라.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지, 세상의 주인공은 아니다.

\*세상의 일이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체증을 호소하고 답답함을 느끼며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해한다.

(평계쟁이 엘리야)

14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말세라고 혀를찬다.

또는 너무 쉽게 이제 새 세상이 열렸으니,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낙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거기서 거기일 것이다.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연히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 페이스북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자기 소개란에 ‘빨간 옷 입은 사람 폐친 신청 거절’이라고 쓰여 있었다. 자기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듯이 파란 옷을 입고 있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가 하면, 집안 파벌 싸움을 마치 개 싸움처럼 하다가 가진 것 모조리 빼앗긴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듯 한다.

또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은 ‘이제야 새시대가 도래 했도다’ 하고, 원전 망가뜨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듣보잡 이론으로 경제를 뺄 밭에 내동댕이치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대낮에 버젓이 죽창놀이를 하고, 대기업을 쪼개 놓아야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된다고 하면서 트집을 잡아 기업총수를 감옥에 가두더니 스스로는 추악한 짓과 몽니로 세월을 보내다가 급기야는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도긴개긴이리라.

그러나 역시 한민족은 예나 지금이나 기찻길옆 옥수수밭이다. 시끄럽게 기차가 지나가도 옥수수는 잘도 크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통일 뿐이다.

이춘근박사는 남한의 경제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북한은 고작 2에 불과하여 통일하면 경제 규모가 102가 되리라고 생각지 말라고 한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규모가 초라하지만,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인력으로 보았을 때 5년 안에 세계 5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게 된다고 보았다. 만약 미국과의 협력만 제대로 된다면 2위까지도 넘볼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가 몹살을 앓고 있는 이념 율법주의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현재의 전쟁은 총칼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인 셈이다. 수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서 백기를 들었다.

만약 한국이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세계는 한국의 승리를 반길 것이다. 이제 한국의 승리는 세계의 승리가 된다.

물론 그렇다고 악한 이념들이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선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매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셨다. 스스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꿈쩍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그를 끌어 낸 것이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부드러운 분이시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시연하시고, (바람과 지진과 불) -이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정신이 바짝들게 하였을 것이다. 엘리야의 영혼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엘리야의 영혼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깊은 영적인 잠에서 즉시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현현은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자가 더 복된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미세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작은 목소리는 영혼을 진정시킨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부드러운 음성에는 친밀함과 애정이 깃들어있다.

사실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외로움과 두려움에 싸였기 때문이다. 성경책을 통털어 '나만 홀로 남았다'는 표현은 엘리야

가 3번 모두 사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두 죽임당하고, 자기 혼자 남겨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정하게 엘리야에게 말씀 하셨다. 엘리야야, 여기서 뭐하니. 너는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하라.

다음에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다음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정의의 실현을 성취하시는 자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심판 당하는 자는 심판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나중에 심판 받는다.

-이미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심판 받을 자임을 전제하고 계심.

-누구만 살아 남는가? 누구만 구원 받는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만 구원받는다.

-크게는 한국교회, 한국인. 작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기회의 나라 한국에서 세속적인 데 너무 신경쓰지 말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겸손히 허리를 묶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행에 힘쓰며 엘리야처럼 할 일 하자.

-그는 엘리사를 비롯한 후학을 기르는데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았다.

기도

우리는 때로 실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문을 항상 열어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울 때 스스로 일어나 주의 일에 매진하게 하소서.

더 어려운 시절에 이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은 너무 좋은 시절인데 우리에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히브리서 성경공부

성경: 히브리서 9장

Tag:

히브리서 성경공부

믿기 시작한 히브리인을 위한 성경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적 이해

당시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70인역을 위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

저자 : 주로 바울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바울 저자에 대한 의심; 스스로 저자를 밝히지 않음. 주로 70인역 사용(전통적으로 바울은 수신신과 발신인을 밝힘. 주로 BHS-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맛소라 텍스트-masoretic text)

\*시편 110편이 중요함.

\*히브리서는 서신서가 아닌, 교리서이다. 주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1:1)

2과: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1:1~4)

3과: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1:5~2:18)

4과: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3:1~4:13)



5과: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제1부(4:14~5:10)

6과: 배교에 대한 경고(5:11~6:20)

7과: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제2부(7:1~8:13)

8과: 탁월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9:1~10:18)

9과: 믿음에 대한 호소(10:19~11:40)

10과: 인내에 대한 호소(12:1~29)

11과: 마지막 권면(13:1~25)

12과: 요약과 결론

그러면 히브리서가 이렇게 구약성경의 핵심구절들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가. 여기에는 하나의 신학이 흐르고 있다. 히브리서가 구약성경의 핵심구절들은 해석하는 것은 **기독론**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첫째 단락(히 1-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을** 소개하면서(히 1:1-4),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강조하는데(히 1:5-2:18), 신분에 있어서도(히 1:1-14), 말씀에 있어서도(히 2:1-4), 만물지배에 있어서도(히 2:5-10), 형제관계에 있어서(히 2:11-18) 그러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둘째 단락(히 3-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비교하여 뛰어나신 분임을** 말하며(히 3:1-6),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안식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히 3:7- 4:7), 여호수아의 일시적인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대조시킨다(히 4:8-11). 여기에서 흥미스러운 것은 여호수아를 등장시킨 것인데, 불완전한 여호수아는 완전하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실제로 그리스어로는 "여호수아"가 "예수"로 표기된다, 히 4:8).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이다(히 3:6).

셋째 단락(히 5-7장)은 멜기세덱 대제사장론을 통하여 구약 대제사장과 예수 대제사장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성격을 강하게 증명한다(신약신학 열두 논문, 185-188 참조). 한 마디로 말해서 이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묘사된다.

넷째 단락(히 8-9장)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데, 옛 시대에 속한 것들(히 8:1-9:10), 즉 예물과 제물(히 8:1-6), 첫 언약(히 8:7-13), 지상의 성소(히 9:1-10)는 지나가고 새 시대에 속한 것들(히 9:11-28), 즉 더 나은 성소(히 9:11-14), 새 언약(히 9:15-22), 더 나은 제물(히 9:23-28)이 도래한 것을 말한다. 이때 더 나은 제물은 반복적으로 드러져야 하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단회적으로 드러지는 예수의 피라고 말한다(히 10:1-18).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된다(히 10:15).

다섯째 단락(히 10-13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것을 말하면서(히 10:10),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자이며 완성자라고 정의한다(히 12:2).

이렇게 히브리서의 구약 인용에서 기독교론이 중심을 이룬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설교의 전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잘 표 시되어있다(히 3:1; 4:14; 10:23). 이 신앙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켜 "더욱 아름다운 이름"(히 1:4)이라고 부른다. 히브리서는 구약성경 인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고백의 사도이며 대제사장(히 3:1)이시고, 구원의 인도자이시며(히 2:10), 믿음의 시작자이며 완성자 이심을(히 12:2)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